1974년, 경북대의 투쟁

강기룡

*강기룡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경북대학생이었으며,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현재는 국민참여개혁신당의 대구 수성갑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7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나 인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10여년이 지나게 되자 국민들의 저항도 심하였고, 특히 자연스레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들과 종교인들의 반독재운동은 격렬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초조한 박정권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정보정치를 통하여 더욱 억압·통제하고, 경제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치체제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영구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공화당 정권은 1972년 10월유신을 선포하고 소위 유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유신헌법 속에는 긴급조치 조항 등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었다.

1973년 여름의 김대중 납치사건은 우리의 언론만 귀와 눈이 막혀 있었지 온 세계가 온통 그 일로 연일 시끄러웠다. 그 해 가을이 되니 외국의 언론과 외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알만한 사람은 모두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참으로 천인공로할 일이었다. 대학은 사찰이 철저하였고, 집회는 3인만 모여도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북대 법정대에 재학중이던 나는 반독재 민주구국운동에 나서지 않고 고시 등을 보아서 출세를 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휘두르는 도끼날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주화 운동만이 조국을 구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섰다.

일제 강점기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열들을 떠올리고,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대한의 민주주의

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곤 하였다.

대학의 교문에 탱크를 대어 놓고 착검을 한 군인이 등교를 막기 시작한 유신정권 초기에는 앞으로 10년간은 반유신 학생운동이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경향 각지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들의 봉기 준비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경북대학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지식인들이 대부분 그러했겠지만 양심의 소리와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로 바위치기를 왜 하냐고 민주화운동의 무모함을 지적하곤 하였다. 마침내 1973년 10월 30일 나는 결단을 내리고 유신후 처음으로 경북대 시위를 주도하였다.

경북대 로타리와 교양과정부 앞에서 전개된 시위에서 나는 학우들 앞에서 준비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선언문에서 강조된 구호는 유신헌법 철폐하라, 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인은 정의의 필봉을 들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김대중 납치사건을 규명하라 등이었다.

시위는 얼마가지 못하여 해산되었고, 내가 손수 썼던 선언문은 체육과 모 교수에 의해서 탈취되었다. 나는 곧 체포되어 대구 북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 날 나의 시위는 11월 5일 경북대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며칠간의 경찰조사와 중앙정보부의 조사가 있고 난 뒤, 나는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를 거쳐 대구 화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미결수들이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감방에 배속되었다. 그 감방은 주로 법을 어긴 공무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은 4 · 19 때 발포명령과 관련된 당시 마산 검찰지청장으로 재직했던 분이었다.

감방 안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색

할 수는 없고 의연한 태도와 호연지기를 보여야만 했다. 내가 다니던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학생대표 몇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나는 오히려 면회온 사람들에게 "감옥 안은 참으로 따뜻한데 바깥은 꽤 춥지요?" 하면서 오히려 차마 행동하지 못한 바깥의 지식인들을 위로한 기억이 있다. 이 때 면회온 친구는 오늘날도 술자리에 앉으면 그 때 면회 장면을 재미있게 이야기하곤 한다.

며칠 수감되어 있으니 몇 명의 경북대 학우들이 화원교도소에 들어왔다. 혼자 하는 수감생활보다 학우들이 함께하니 수감생활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12월 7일이 되어 재판이 있었는데 경북대 4명의 학생들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나로서는 제1차 복역이 된 셈이다. 아마 학생들을 구속해 두는 것은 국내외 여론은 물론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서 석방해 준 것 같다.

1973년 12월 7일자 「동아일보」 1면 톱기사는 구속 기소되어 석방된 학생으로 서울대의 강영원, 나병식, 정문화, 도종수, 김병곤씨 등과 경북대 학생으로는 최문수, 강기룡, 신유균, 이강철씨 등을 보도하고 있다. 유신선포 1년만에 유신반대로 구속기소 후 소위 구제된 학생들은 전국에 9명이 있었다. 그 외에도 입건되거나 구류중인 학우들도 다수 있었다.

출소 후에도 유신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활동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73년이 가고 74년이 다가왔다. 학내 분위기는 3월이 되어 개학만 하면 유신반대 시위가 촉발될 상황이었다. 유신정권에서는 4월 위기설을 넘기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발동하였다.

심지가 굳고 뜻있는 학우들간에는 경북대학이 영남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유신독재 철폐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 3월 21일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준비하고 유신반대시위에 들어갔다.

이 날 나온 선언문과 우리들의 결의문에는 물가고로 파탄된 국민생활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유신헌법 폐기하고 민주헌법 제정하라, 남북대화를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이며, 민주단체 및 평화통일 운동가들을 통일정책에 참여시켜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대일 예속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자주권을 확립하라, 민주애국적인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정보정치와 국민탄압정치의 본산인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민주적 기본권을 확립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응분의 처벌을 하라, 근로자의 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라, 생산비도 되지 않는 정부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라, 파멸 직전에 있는 중소기업과 민족산업의 구제책을 조속히 세우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거국적인 민주학생투쟁기구의 결성과 범국민적인 연합투쟁기구의 결성을 제의하고 있다.

나는 법정대의 학생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었다. 이미 정보기관에서는 3월에 시위가 있을 것으로 감지하고 대비해 오던 터이라 선언문은 배포되었으나 시위는 일부에 그쳤다.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유신철폐를 위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는 충분한 시위였다. 3월 21일 경북대 시위는 그 후 전국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나는 이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고, 당시 중앙정보부와 경북경찰국 대공분실에서 약 열흘간의 조사를 받았다. 주로 유신반대 시위의 모의과정에 관한 조사였다. 그리고는 서울 서대문구치소로 옮겨졌다. 서대문구치소에서도 가끔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로 끌려 가서 조사를 받곤 하였다.

남산 6국 지하실은 작은 방에 책상만 하나 놓여 있었다. 주로 조사받는 내용은 서울대 학생 누구가 대구에 내려 갔는데 만나서 무엇을 했

느냐, 배후가 누구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불려 나가면 종일 조사를 받곤 하였고, 돌아올 땐 축 늘어져 있었다. 서대문 감방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1974년 3월 30일 경 서대문구치소 10사상 독방으로 이감되었을 때는 면회는 물론 책도 반입되지 않았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이호철, 김우종 선생님 등 문인들께서 구속되어 있었다. 내 옆방에 있던 김우종 선생님은 어느날 교도소의 사식에 해당하는 우동을 한 그릇 사 주셨는데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다.

그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수인번호 위에 노란 표찰을 달고 있었다. 노란 표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감시가 삼엄하였다. '빵기통'을 비울 때가 되면 김선생님 독방을 지나치는데, 나는 그 통을 든 채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했다.

군사법정에서 유신헌법 비방의 죄로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7년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에 대한 1심재판이 끝나고 그 해 가을에 전국 대학들에서 검거된 민청학련 관련자 대부분이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안양교도소는 서대문보다는 현대식이었고 채광도 잘 되었다. 방은 독방이었지만 모두 함께 있으니 서로 힘이 되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독서도 할 수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목욕과 운동도 할 수 있었다.

유신헌법을 반대한 사람들이 유신체제 법정에 항소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내 옆방에 있었던 서울대의 김경남, 그 옆방의 강원대 정재돈 등 선후배들과 서로 의논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 그 후 형이 확정되었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연고지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포승줄에 묶여 대구 화원교도소로 이감을 오게 된 것은 그 해 초겨울이었다. 화원교도소 1사하는 시베리아였다.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어두컴컴한 작은 독방이었다. 그러나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독서를 할 수 있으니 지낼만 하였다.

1975년 2월 16일 우리들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1980년이 되어서야 복학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그것도 잠시였고, 다시 80년 광주와 관련하여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50사단과 5관구 영창에 투옥되어야만 했다. 군영창은 정말 곱징역이었다.

1980년 5월 18일에 투옥되어 그해 가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80년에는 참으로 실망이 컸다. 서울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신군부의 폭압정치는 유신체제를 능가했기 때문이다. 1984년에 복학하여 졸업하였으니 대학을 14년간 다닌 셈이다.

민청학련이란 이름은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경북대학교는 반독재민주구국투쟁위원회가 유신체제 종식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기구였다. 이 사건 이후 나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다. 변변한 취직은 물론이고 주위로부터 편하지 못한 눈총을 받아야 할 때도 많았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인간은 또한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한 세대가 흘러간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자긍심과 아울러 보람도 느낀다. 민주화를 견인한 역사의 주인답게 인격도 훌륭해야 하고 실력과 능력도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